



제5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2025년 7월 27일)

## 제5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집회 14,2)

주님, 주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저희가 활기를 얻어

시간 속에서 순례를 계속하게 도와주소서.

분열된 이 세상에

친교의 희망을 전하게 도와주소서.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 세상에

평화의 희망을 전하게 도와주소서.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이 세상에

웃음이 넘치던 예전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손주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다정하신 주님의 기억을 일깨우게 도와주소서.

주님에게서 멀어진 이 세상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생명의 희망을 전하게 도와주소서.

주님,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나이다.

아멘.

## 레지오 훈화 - 올바른 레지오 마리아 신심

### 8-1. 맺음말 (2)

레지오 마리아 선서문 논쟁은 성령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신학적 전망을 제시하도록 과제를 던져 준다. 사실 이 선서문의 문제는 ‘성령의 보편적 현존과 활동’을 마리아의 역할 안으로만 한정시키려는 데에 있다. 이는 성령과 성모 마리아의 신비로운 관계를 일종의 ‘상호 경쟁’ 구도로 변질시켜, 헤어날 수 없는 미로 속에 가두는 것과 같은 잘못이다. 마리아의 ‘참여적 중개’ 역할이 성령의 보편적 현존과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 활동과 동일시되거나 ‘상호 경쟁’의 구도로 자리잡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브 콩가르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톨릭 영성가들의 일부 표현들은 비판받을 수 있다. 그들은 은총과 영적인 삶의 직접적인 효과를 마리아에게 귀속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다가는 하느님과 성령의 양도할 수 없는 업적까지도 마리아에게 돌릴지 모르겠다. 그런데 마리아의 역할은 그녀를 육화하신 말씀의 어머니로 만들고 모든 거룩함과 성인들의 통공의 원리이신 성령의 역할 안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과 마리아의 관계를 숙고하며 신학적 풍요로움을 통하여 이것을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데,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와 관련한 다양한 ‘대중 신심’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길을 여는 하나의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대중 신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셨고, 대중 신심의 신학적 의미를 새로이 탐구하는 흐름이 이미 대두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령론적 접근과 성찰이 꼭 필요하다. “대중 신심은 하느님 백성의 자발적인 선교 활동의 참다운 표”으로서 “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 실재와 관련되고 성령께서 그 주역”이시기 때문이다.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올바른 레지오 마리아 신심, 44~46쪽>

###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4명 중 주일미사 195명 참례 / 참례율 : 27.31%

| 평일미사           | 토 (7/19) | 월 (7/21) | 화 (7/22)<br>내촌 / 본당 | 수 (7/23)<br>본당 / 송정 | 목 (7/24)<br>송정 / 본당 | 금 (7/25)  |
|----------------|----------|----------|---------------------|---------------------|---------------------|-----------|
|                |          | 14명      | 12명                 | 11명 / 24명           | 16명 / 12명           | 11명 / 25명 |
| 주일미사<br>(7/20) | 내촌공소     | 토요일 저녁   | 두촌공소                | 송정공소                | 교중미사                | 철정공소      |
|                | 19명      | 33명      | 26명                 | 26명                 | 74명                 | 17명       |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16주일

|            |           |          |           |       |        |
|------------|-----------|----------|-----------|-------|--------|
| 주일 헌금      | 1,199,000 | 교무금      | 1,180,000 | 감사 헌금 |        |
| 양성, 복지, 원로 | 50,000    | 성전건축 적립금 | 130,000   | 미래 기금 | 40,000 |

**교무금** 박영수, 강민정, 이천희, 이호순, 김시남, 김종녀, 김석기, 최동자, 이형귀, 강인식, 최정화, 엄금순, 이정자